

# 뽀뽀머리 류지혁 “몸도 마음도 리셋...가을잔치 가야죠”

KIA 함평 스프링캠프를 가다

“2018년 허경민 목표로 뽀 뽀 부상 의식 않고 경기에 최선 출루율 높이고 타점 생산 욕심 강팀 위해 선후배 가교 역할



“2018년 허경민(두산)을 목표로 뽀뽀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 첫날 헤어스타일로 화제를 모은 선수가 있었다. 중앙고 시절을 연상케 하는 뽀뽀머리로 등장한 내아수 류지혁(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류지혁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작년에 머리를 길었는데 다 깎아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자고 생각했다”며 “새로 시작하니까 시원하게 머리를 하게 됐다. 몸도 마음도 리셋하고 왔다”고 캠프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새로 시작하는 류지혁은 마음속에서 ‘부상’을 지웠다.

2020년 6월 7일 홍건희와의 트레이드로 두산에서 KIA로 이적한 류지혁은 불꽃 같은 5일을 보낸 뒤 햄스트링 부상으로 일찍 시즌을 마감했다. 지난 시즌에도 류지혁은 몇 차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류지혁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뽀 뽀 생각이 다. 부상당한지 오래 됐고, 재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주변에서도 안부 인사가 ‘햄스트링 괜찮아?’였다. 그게 너무 싫었다. 올해는 의식있고 뛰려고 한다. 햄스트링 다쳤다는 생각 안 하고 평소처럼 뛰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부상’이라는 키워드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올 시즌이 중요하다. 몸으로 보여줘야 하는 류지혁은 “원래 잘하던 것 하면 된다. 뽀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고 한다. 수비, 방망이 비율은 비슷하게 보고 있다”며

“잘 살아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 출루율과 함께 타점 생산에도 욕심이 있다. 찬스 때 마음 편히 볼 수 있고, 주자가 없는 상황에 나가면 살아나 가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라운드에서는 물론 덕아웃에서도 류지혁의 역할이 중요하다. 야수진의 중간급 선수로 류지혁은 선후배를 아우르는 ‘가교’ 역할도 해야 한다. 류지혁은 “팀에 필요한 것 있으면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고, (김)선빈이 형과 대화를 많이 한다. (주장)선빈이 형이 못 챙기는 부분을 내가 챙기고 노력하고 있다. 해야 할 말은 바로바로 해야 하는 스타일이라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야기대로 지난해 경기 도중 덕아웃에

서 선수단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류지혁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류지혁은 “큰 점수 차로 지고 있었는데 애들이 그냥 나버린 것 같은 플레이를 했다. 선수들 모여서 ‘경기 초반에 포기하는 것은 아닌 같다. 할 것 하면서 투수들 뒤에서 힘을 줘야 한다’고 했었다”며 “투수가 점수 주면 야수들이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해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리더십을 알고 있는 선수단은 이번 주장 투표에서 류지혁에게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줬다. 리더십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류지혁이지만 야구를 대할 때는 선배의 권위를 내려놓는다. 류지혁은 “요즘 후배들 야구 정말 잘한다. 캠프 시작 전에 야구장에서는 선배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후배들에게 이야기했다”며 “나이가 어린들 적든 다 배울 게 있다.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생각으로 수비를 하고 타격하냐고 물어본다”고 말했다. 배움의 캠프를 보내고 있는 류지혁은 올 시즌 확실한 목표도 정했다. ‘2018 허경민’이 자신이 바라보는 지향점이다. 2018년 허경민은 133경기에 나와 0.324의 타율과 10홈런 79타점 20도루를 기록하면서 3루수 골든글러브를 들어 올렸다. 류지혁은 “경민이 형과 통화를 하다가 2018년 허경민처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형 반응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였는데 목표는 높게 잡으라고 했다(웃음)”며 “2018 허경민처럼 하면 팀 성적도 올라갈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하나 ‘가을 잔치’ 꿈도 꾸다. 두산에서 매년 가을 야구를 했던 류지혁은 ‘강팀’에서의 경험을 살려 팀에 기여하고 싶은 바람이다. 류지혁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한다. 목표는 하나로 같다. 어떻게 애들 이끌어갈까 할지 생각하고, 더 강팀으로 갈 수 있도록 형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고 뜨거운 가을을 기대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임기영 “올해 10승·160이닝 욕심 부릴 것”



KIA 타이거즈 임기영이 “올해는 욕심부려보겠다”며 10승과 160이닝을 이야기했다. KIA 마운드는 올 시즌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불펜은 물론 선발진 경쟁도 뜨겁다. 돌아온 양현종과 함께 새 외국인 투수 선 놀림과 로니 윌리엄스가 일단 세 자리를 채웠고, ‘신인왕’ 이의리도 선발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부상 선발전서 에이스 역할을 하며 임시 주장까지 소화했던 임기영이 남은 선발 한 자리를 선점했다. 임기영은 “겨울에 운동을 잘했다. 몸 상태는 좋다”며 “피칭 두 번 했는데 초반치고 괜찮았다. 무엇보다 아픈 곳이 없어서 좋다. 지난해보다 훨씬 몸상태가 좋다. 지난해에는 초반에 잔 부상이 좀 있어서 공 던지는 것도 못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시즌보다는 좋은 몸 상태에서 차분하게 선발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있다.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영은 “중현이, (한)승혁이 형, (이)민우 형도 있고 잘못하다가 초반에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긴장하면서 뛰려고 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경쟁 분위기를 전했다. 확실한 선발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 임기영은 ‘질문’으로 답을 찾고 있다. 임기영은 “딱히 구종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없고, 좋은 것을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하려고 한다”며 “(나)성범이 형 왔고, (고)종욱이 형이 와서 물어봤는데 ‘직구 스피드가 올라오니까 까다로웠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상대 전적에서 강했던) 성범이

형이 와서 체인지업에 관해 물어보기도 했고, 종욱이 형은 내 공을 잘 쳐서 그 부분을 물어봤었다”고 말했다. 또 “좋은 때 안 좋을 때 기복이 심하고, 7-8월 더울 때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줄이려고 한다”며 “공격적인 피칭을 하려고 한다. 안 좋을 때 보면 도망가거나 볼넷이 많았다. 감독님도 공격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만큼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임기영은 지난 시즌까지 구체적인 개인 목표를 언급한 적이 없다. 하지만 올 시즌은 다르다. 임기영은 “지난 시즌 끝나자마자 크게 목표 잡아 놓은 게 있다. 10승이 목표다. 8, 9승에서 끊겼는데 올해는 10승을 하고 싶다. 그리고 기록 없이, 7-8월 잘하면서 160이닝 이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친한 선배 양현종이 동기부여가 됐다. 임기영은 “지난해 현종이 형이 빠졌을 때 우리 팀이 약해졌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다. 그래서 더 욕심이 나기도 했다”며 “올해는 좋은 선수들도 들어오고 재미있을 것 같다. 빨리 시즌이 시작하면 좋겠다”고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시즌 10호골 토트넘 홉스퍼의 손흥민(가운데)이 10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2021-202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경기에서 골을 넣고 있다. 손흥민은 리그 9호 골이자 올 시즌 10호 골을 기록했지만, 팀은 2-3으로 역전패했다. /연합뉴스

# 조선이공대 레슬링 국가대표 3명 배출

## 7월 주니어 아시아선수권 출전

조선이공대에서 레슬링 국가대표 3명을 배출했다. 10일 조선이공대에 따르면 레슬링부 김도근·김정욱·조정아(이상 스포츠재활학부)가 최근 함평서 열린 ‘2022년 레슬링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및 2022년 아시아주니어 및 아시아 카дет 파견 선발대회’에서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7월 바레인에서 개최되는 ‘2022년 주니어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김도근은 남자주니어 자유형 61kg급, 김정욱은 남자주니어 자유형 79kg급, 조정아는 여자주니어 자유형 72kg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내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진은 남자주니어 자유형 70kg급에서 2위에 올랐다. 조선이공대 조순계 총장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열심히 훈련에 임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우리 대학 레슬링팀이 국가대표 선발은 물론 매년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대거 수확하며 신성장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더욱 정진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FC 브라질 특급 공격수 마이키 영입



“팀 승격에 보탬 되겠다” 광주FC가 브라질 특급 공격수 마이키(사진)를 영입해 화력을 강화했다. 광주는 10일 브라질 출신 공격수 마이키(28·Mike dos Santos nenatarvicius)를 영입했다. 175cm·67kg의 마이키는 빠른 스피드와 함께 드리블 돌파, 공간 침투 능력이 좋은 측면 공격수다. 강력한 원발력을 보유한 마이키는 뛰어난 센스, 침착한 마무리를 바탕으로 공격형 미드필더와 세컨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할 수 있다. 2011년 브라질 파울리스타(파울리스타A1)에서 데뷔한 마이키는 보타포구SP(파울리스타A1), 아틀레티쿠 GO(세리에B), 파이산두(세리에B) 등에서 활약하며 경험을 쌓았다. 특히 2017년 아메리카 미네이루, 2020년 차페코

엔세 소속으로 브라질 최상위 리그인 세리에A 승격을 이끌었다. 광주의 핵심 자원인 헤이스와 호흡을 맞춘 경험도 있다. 마이키는 “2013년(인터나시오날) 헤이스와 같은 클럽에 있었다. 팀에 오기 전 K리그와 광주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새로운 곳에서 첫 도전을 시작하는 나와 승격에 도전하는 광주의 열망이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 생각한다. 팀 승격에 보탬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Includes movie listings for Lotte Cinema and Kwangju Cultural Arts Center.